꿈·학교·친구…내 성장 이야기 담았어요

광주시교육청 주관 '책쓰기 동아리' 참여 학생들 책 출간

태봉초 문집

조대부고 단편소설집

광주여상 수필집

등단 기념 'V' 광주여상 학생들이 지난 26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이 펴낸 책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중고생 19개팀, 기획·집필·제작 28권 출판기념회

시·소설에 교양 과학서까지…직접 그린 삽화도 곁들여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지난 26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학생 책쓰기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 작가들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은 28권의 책에 그들의 꿈·희망·이야기를 담아냈다.

◇**나도 작가다!**=대학교 문학과 지망생을 찾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된 지 오래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빠져 책 읽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많고 대학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도 끊이질 않는다.

이런 판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냈다. 시와 소설, 동화 같은 문학 창작뿐 아니라 교양 과학서도 써냈다. 완성도도 제법이다.

소수의 재능있고 특출한 아이들이거나 지도 교사 주도로 만들어진 책일 것이라는 의구심은 교사·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며 깨졌다.

광주시교육청의 '2015년 학생 책쓰기 동아리' 사업에 참여해 어엿한 학생 저자(著者) 에 이름을 올린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19개 팀이다. 이들 학생들 모두 스스로 동아리에 가입, 주제를 정하고 초고를 쓰면서 삽화 작업까지 스스로 마무리해 28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주제 선정부터 책 디자인 작업까지 전부 참여**=이번 프로젝트는 초안 작업부터 디자인 작업까지 모두 학생들의 힘으로 마무리했기에 의미가 더했다.

학생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재를 찾아냈다. 한동균·정영석·최효준·엄태중·김용희·윤현민·박창기·배창원·김남욱 등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은 '썬썸업'이라는 제목의 책에 담배를 소재로 한 무역 상인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메르스 사태를 소재로 삼는가 하면, 쓰레기섬을 만들어 환경 문제를 짚어나가기도 했다.

광주여상 학생들은 첫사랑을 비롯, 살면서 겪은 소소한 일상을 캐릭터·만화를 곁들여 풋풋한 느낌이 가득한 책으로 엮어냈다.

그런 다음 각자 글을 쓰는가 하면, 조별로 만나 줄거리와 스토리를 조율하고 글을 쓴 뒤 다시 모여 다듬는 과정을 한 해 동안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무뚝뚝했던 남자아이들의 경우 활발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가 하면, 서로 속마음을 알게 돼 우정이 한결 친해졌다고 했다. 여학생들도 매주 한 차례씩 만나 글을 쓰고 다듬으며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안 봄 조대부고 지도교사는 "여름 방학 때 거의 매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 글을 쓰고 다듬는데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는 게 놀라웠다"고 했다.

◇**읽고 쓰고 대화하며 꿈 찾기**=글쓰기나 출판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펴내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아리 담당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책쓰기' 프로젝트 진행을 돕는 팀장 역할을 맡아 학생들의 글 쓰기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소재를 찾아내도록 지도했다.

고은비·김소현·김경범·이명주 등 광주여상 학생들은 누구나 겪어봤을 일상과 한 번쯤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과 소망을 '이런 십팔세'라는 가벼운 이야기로 풀어냈다. 광주고 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털어놓는 수다 형식의 수필집 '광주고 단톡방'은 참신한 소재를 가져와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과학적 상식과 원리를 덧붙여 엮어낸 '고등학생이 들려주는 공통과학 이야기'는 어렵게 느껴질만한 과학 얘기를 쉽게 접근하려는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태봉초등학교 4학년생의 풍성한 상상력을 담은 '꼬꼬마 탐구생활,니.나.노'(니가 나누고픈 비밀 노트)' 등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독서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 '학생 작가들의 꿈을 읽다'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들의 이야기, 책이 되다'라는 사업을 진행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하루 5분 독서가 책 쓰는 데 큰 도움 됐죠"

광주여상 고은비 양

고은비(18·광주여상 글로벌비즈니스과 2년·**사진**)양은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했다.

고 양은 "처음엔 무등산을 오르며 관련 내용을 쓰려고 했다가 자유 주제로 바뀌었다"면서 '이런 십팔세'라는 이름의 책을 내기까지를 설명했다. 첫사랑, 고민, 다이어트 등 또래 여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을법한 소소한 일상 얘기를 소재로 했지만 마감시간까지 제출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고 양은 "책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뿌듯하다"고 했다. 광주여상 학생들은 고양과 김경범·김소현·이명주 등 4명이 직접 글을 쓰고 박은경·안유빈·이규희 등 3명은 책의 디자인을 맡는가 하면, 학생들 개성을 살려 직접 만든 캐릭터와 만화를 곁들이며 애정을 쏟았다.

고은비 양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5분 책 읽고 수업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책과 가까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책 쓰기는 내면 돌아보는 좋은 방법"

조대부고 안 봄 지도교사

"무뚝뚝한 남학생들이 서로 챙겨주며 책임감을 갖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더없이 보기 좋았습니다."

안봄 조선대 부속고교 책쓰기 동아리 '글에 빛' 지도교사(**사진**)는 한 해 동안 책쓰기 동아리 활동을 해온 남학생들을 대견하다고 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뿐 아니라 다른 동아리를 신청했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학생들까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책을 출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의 학생들의 잠재력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안 교사는 또 "말로 하기 힘들었던 마음을 글로 풀어내고 줄거리 이야기를 나누며 은근히 챙겨주는 아이들의 우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책 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고 현재와 미래를 정리할 수 있는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벤처창업대전 장관상

맞춤형 창업 지원…13년 연속 중기청 평가 '최우수'

동강대(총장 김동옥) 창업보육센터가 지역 창업보육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대학생 및 입주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시스템과 성과가 정부 평가에서도 인정받으며 지역의 대표적 창업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에서 창업활성화 기관 부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국 관련 단체·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상이라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앞서 동강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해 박경우 창업보육실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독보적 창업 지원 활동으로 업계에서 '1등 창업 지원군'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전국 281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는 올해까지 13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뒤 입주 기업들을 위해 펼친 전문적인 컨설팅, 상품 홍보·판매 마케팅 노하우 전수와 투자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창업 맞춤형 사업'들은 올해 센터 입주기업들의 창업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창업보육센터가 집계한 지난해 매출액도 114억1500만원에 달했고 136명의 고용, 창출 실적을 올렸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창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면서 안경광학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전국창업경진대회 수상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도 잇따랐다.

김현철 창업지원단장은 "입주 기업과 대학 창업 동아리가 자립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여대, 다문화 청소년에 '재능 나눔'

광주여대가 연말을 맞아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여대는 오는 5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네일 아트· 비누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2일에도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광주여대는 다문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특성화 사업을 선정,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대학 양궁장에서 열린 '다문화 학생 글로벌 양궁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사진**〉도 대학의 이같은 특성화 정책에 따라 진행된 행사다. 당시 행사에서는 광주여대 소속 양궁 국가대표인 기보배와 최미선 등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이 15일까지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오는 21일 개강하는 이 과정에서 강의실습을 포함, 12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강의실습 시간에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시연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수료 후 한국어교원능력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문의 062-530-3648.

▲**광주대**는 호텔외식조리학과와 세계적 호텔 체인인 태국 두짓타니호텔간 학생 취업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태국 두짓타니 호텔그룹은 아시아 및 유럽에 40여 개의 직영체인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기업으로 태국에 조리학교인 '르 코로동 블루'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6일 광주시 동구 KT정보통신센터 3층에서 '2016대입 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사전예약 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는 설명회 자료집, 배치표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문의 02-392-1881.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써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 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공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 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